



“뉴스통신진흥회 조속히 구성해야”

노조 청와대·국회에 촉구, 언론노조도 성명 발표

청와대와 국회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노조는 지난 17일 정재용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진흥회 구성이 2년 이상 표류함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연합뉴스사가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과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이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물론 김원기 국회의장을 접촉, 노조 성명을 전달하고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측에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연합뉴스 노조의 성명에 이어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는 조속히 진흥회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 진흥회 구성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23일 열린 집행부 회의 및 운영위원-지배구조특위 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 위원장으로부터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접촉결과 등을 보고받고 조속히 진흥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충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지난 2003년 연합뉴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통신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 법의 핵심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정 2년이 넘도록 구성되

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등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 감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진 추천권 등을 갖는 기구이며, 회사는 진흥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환수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성명 4면

노보만평



연합참일꾼상 총무부 영선팀, 백중현 사우 공동수상



제1회 연합참일꾼상 수상자들이 24일 오전 노조에서 축하박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도광환 사무국장, 총무부 윤여풍, 황영도, 이판기, 전산부 백중현, 정재용 위원장.

노조는 제1회 ‘연합 참일꾼상’ 수상자로 총무부 영선팀(황영도, 이판기, 윤여풍)과 전산부 백중현 사우를 선정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총무부 영선팀은 사내에서 굵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 남다른 성실성과 노력성 등이 탁월하게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전산부 백중현 사우의 경우 업무시간과 강도에 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근면성이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총무부 윤여풍 사우와 전산부 백중현 사우는 “솔직히 ‘참일꾼상’에 추천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 내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첫번째 수상자로 결정된 만큼 상의 값어치가 손상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 참일꾼상에는 우열을 가리 힘든 총 8건의 후보가 추천돼 경합을 벌였으며 집행부원들은 후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내 사원들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는 앞으로도 분기 마다 참일꾼상 시상할 계획이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애석하게 탈락한 후보들도 2회 참일꾼 후보로 또다시 추천을 받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합 참일꾼상은 음지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8대 집행부가 신설한 상이다.

수상소감 3면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조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국 및 삼성 SDS측의 협조로 노조 홈페이지(www.newsunion.co.kr)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의 기본방향은 디자인 개선, 게시판 활성화, 개인별 회원 가입, 알림판 강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노조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사내게시판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및 사원들이 실명 혹은 익명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 집행부 소식은 물론 조합원 및 사원들이 개인별, 부별, 그룹별 소식들을 다양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는 8월 1일 새롭게 선보일 노조 홈페이지가 '화려하게' 탄생할 수 있도록 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사원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작업에 추가하고 싶은 여러 아이디어를 노조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이디어가 채택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한 사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조합원 단상

“말에게는 당근이 필요하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네트워크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네트워크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 이관에 따라 2인 5교대(전산서버 운영팀,네트워크 운영팀)로 야근을 돌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어서 토, 일요일 연휴를 즐기기는 두 달에 한번 정도이다. 최근에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고 부서원들은 하나, 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높은 근무 강도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 이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신국 스스로의 선택이었기에 근무는 힘들어졌어도 모두 전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생각하는 만큼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야근 수당은 차비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주말 야근의 경우, 주말 일근보다 오히려 적은 수

당을 받는 어이없는 계산법이 적용되고 있다.

비단 야근 뿐만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의 적용도 마찬가지다. 현재 19시30분까지는 석식시간이므로 20시 30분까지 일해야 한 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일이 많아 20시까지 잔업을 하는 근로자 중 저녁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강도 높은 근무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 만큼의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찌면 회사가 이러한 근무 상황을 '잘 몰라서' 현재의 부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조가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용석 네트워크부

조합 소식

●노조 워크숍이 내달 10일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집행위원, 운영위원, 지배구조특위 위원 및 일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조합원은 내달 7일까지 노조 사무실로 참석 여부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3차 출장 서비스가 오는 30일 하루동안 노조 사무

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3차 출장 서비스가 마지막 출장 서비스이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석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조합 탈퇴

홍정표 제주지사장 (5월16일)
이선근 국제경제부장 (5월 20일)

● 조합활동 사진모음



▲ 4월27일 광주·전남지사 방문(광주)



▲ 5월6일 전국사진기자 워크숍 참석(대전)



▲ 5월12일 대구·경북지사 방문(대구)

이달의 조합활동

●4월 27일~ 28일 : 정재용 위원장과 도광환 사무국장은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간담회는 광주지역 특유의 끈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급주중인 정위원장과 위장에 탈이나 역시급주중인 나경택 지사장 덕분에(?) 술 보다는 대화에 치중..

●5월 3일 : 정 위원장은 인천에서 열린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언론노조 조합비 문제 등에 대해 논의..

●5월 4일 : 정 위원장이 시내 한호텔에서 회사 주최로 열린 뉴미디어 기획위원회 워크숍에 참석..정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후 대화나 토론중 뉴미디어 관련 용어를 서슴없이 인용할 정도로 뉴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분투중..

●5월 6일 : 정 위원장과 도 사무국장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린 전국 사진기자 워크숍에 배석.. 간담회에는 서울과 각 지사의 사진기자는 물론 과거 사진기자로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나경택 광주 지사장, 이윤승 전북지사장, 진정영 강원지사장, 임준재 부장대우(공주주재) 등 30여명이 참석, 지방사진기자 총원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쳐..

●5월 11일 : 노사협의회 이후 처음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 구성문제와 관련,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결과 등 최근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진흥회 구성을 위해 힘으로 모을 것을 당부..

●5월 12~13일 : 정 위원장과 도 사무국장이 대구·경북지사를 방문, 간담회 개최.. 간담회는 대구지역 특유의 무뚝뚝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지사 조합원들은 지방근무자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

●5월 16일 : 지난해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첫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 앞으로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듯..

●5월 17일 : 5월 들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막후 노력을 해온 정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집약해 진흥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여야 원내대표 등에 전달..

●5월 18일 : 회사 정보통신국 조합원 및 삼성 SDS측 직원들이 노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토론.. '하루라도 노조 홈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으면 좀이 쑤신듯' 홈페이지를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자며 한 목소리..

●5월 18일 : 정재용 위원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오늘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언론유관 단체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며 조속한 진흥회 구성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

●5월 19일 :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연합뉴스 지부의 성명발표에 이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5월 23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연합 참일꾼상 첫 수상자를 결정하고 저녁에는 지배구조 특위간사 및 운영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연석회의를 열어 정 위원장으로부터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히 진흥회 구성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5월 25일~27일 : 정 위원장이 경기도 양주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열린 언론노조 워크숍에 참석..



최전선에서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 업무 증폭

연합뉴스 정보사업국엔 신문, 방송 매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미디어사업부가 있다. 예전에는 업무부라고 불렀는데 세월의 변화에 발맞춰 이름도 몇 차례 바뀌어 현재의 미디어사업부에 이르렀다.

최근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많은 언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오프라인의 위기'나 '미디어의 위기'나 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 언론사마다 앞다투어 미디어 연구팀이니, 기획실이니, 정책 분석실 등을 사장직속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모 신문사는 음식점 사업에 까지 진출했다고 하니 언론의 위기와 생존의 몸부림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언론사 위기는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이해가 달라 단합이 잘 안되던 주요 신문사들의 모임인 총무협의회는 연합뉴스의 전제로 인사를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온라인신문협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며 아쿠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고민하는 언론사들이 콘텐츠 강화, 비용감소, 수익증대 등 3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방 언론사들과 경쟁적으로 제휴를 맺기도 하고, 재외동포 언론사나 선교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변화의 무풍지대 같았던 방송사도 계속되는 광고매출 감소로 비용절감을 고민하고 있다니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전채료 인상 노력이 쉽지않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연합사우들은 어느부서할 것 없이 날로 높아가는 업무강도를 실감하고 있다. 미디어사업부도 예외는 아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이다. 방송사와 전채료 협상을 하고 총무협의회와 전채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가 하면 경영난에 처해있는 언론사들과 여러 논쟁을 벌여야 하며 더불어 우리의 저작권 보호활동 추가로 찾는 노력에도 집중해야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외의 언론사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한 미디어사업부의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고 주위 환경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국 요원의 재교육과 인력보강에 과감한 투자를 기대해 봄은 당연하다고 본다.

“만물은 흐르며 아무것도 한결 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옛 철학자의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요즘 연합뉴스 사우들은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철학자의 태도처럼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어떤 조직이던 살아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해라”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구성진 미디어사업부



연합참일꾼상 수상소감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어...

황영도·이판기·윤여풍 총무부 영선팀

우선 지면을 통해 '연합 참일꾼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주신 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며 또 우리들을 추천해주신 선후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취재현장과 영업현장에서 항상 우리들보다 더욱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앞서 상을 받게 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큰 상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참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참일꾼상' 덕택에 우리들의 업무가 더욱 잘 알려지게 된 만큼 업무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부 영선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진정 고생하는 선후배들에게 미안할 따름...

백중현 전산부

연합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수 있는 상이 제정됐다는 것이 연합이 추구해야 할 미래로의 또 다른 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실현해 주신 노조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첫 수상자로 지명된 것이 영광이긴 합니다만 과연 제가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만 둘러봐도 제가 속한 정보통신국 내에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희생하며 노력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기에 쑥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멀리 있는 지사 선후배, 동기들과 본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더 자격 있는 분들이 많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보다 더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신 선후배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더불어 전하고 싶습니다.

운 좋게 눈에 띄어 상을 받게 된 것이니 많이 부끄러울 뿐이고 상을 먼저 받으셔야 할 분들 뵈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참일꾼상'이 음식에서 고생하는 사우들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상이 아니라 그런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노력해 오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연합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의 경중을 논함이 없이 하나같이 중요한 일이라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참글상에 격려상 2편 선정

김태중, 홍인철 조합원 수상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이달의 참글상(4월분) 격려상 수상작으로 경남지사 김태중 조합원의 '3년전 중학생의 단순자살, 학교 폭력이 원인' 과 전북지사 홍인철 조합원의 '밥도둑 차단 지문인식기 설치 말썽' 등 2편을 선정했다.

'중학생 단순자살...'의 경우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이면에 학원 폭력이 내재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밥도둑...'은 사라나는 학생들에게 가해진 어른들의 몰인정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모자람이 없었다.

격려상에는 상금 3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5월 송고분에 대한 참글상 추천은 오는 6월7일까지 노조나 각 공보위원들에게 제출하면 된다.

각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조속한 추천과 임명을 촉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께 호소합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뉴스 도매상' 이자 '정보주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뉴스통신진흥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03년 4월 30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통신진흥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사에게 국가기간통신사라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진 정보화시대를 맞아 로이터, AP, AFP, 교도통신 등 세계 거대 통신사들과 맞서 우리나라의 정보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안으로는 신문, 방송, 뉴스포털 등 언론매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 생생한 정보와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사에 대한 경영 감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경영진 추천권 등을 갖는 뉴스통신진흥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또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뉴스통신진흥회로 하여금 KBS, MBC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사의 지분 중 일정 부분을 인수해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뉴스통신진흥법의 핵심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입법 이후 2년이 넘도록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해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인은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3년 9월 국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각각 진흥회 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당시 연합뉴스 노조의 일부 피추천인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맞물려 진흥회 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현 노조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나라 언론의 중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흥회 구성이 2년 이상 표류함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정보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연합뉴스 노조는 '진흥회 이사는 뉴스통신에 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라고 돼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를 살려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이사로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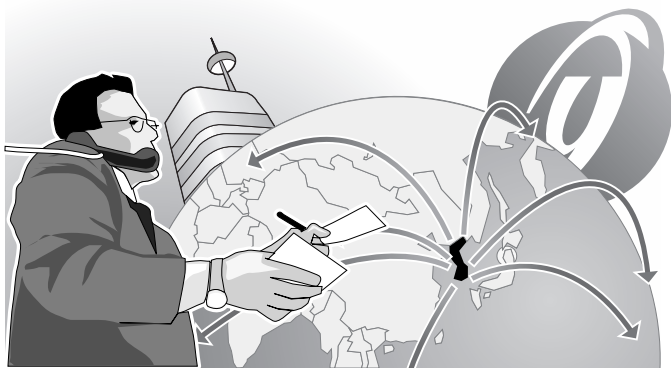
아무쪼록 연합뉴스사가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과 임명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위원장 정재용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청와대, 국회는 이사를 즉각 추천, 임명하라 -



국회는 지난 2003년 4월 연합뉴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통신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핵심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정 2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7명의 이사 가운데 5명의 이사는 국회(3명), 신문협회(1명)와 방송협회(1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지난 2003년 9월 국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각각 진흥회 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연합뉴스 지부의 일부 피

추천인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맞물려 진흥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언론노조도 잘 알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여야 정당의 의석분포의 변화 등으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 및 구성 문제에 대한 해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가 계속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진흥회 이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뉴스통신에 대한 이해, 개혁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인물' 들로 선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언론 특히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인물이 진흥회 인사로 임명될 경우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조속히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5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임금피크제 실무협의 시작

노조는 지난해 17대 집행부 당시 노사가 임금피크제 공동연구에 합의한데 따라 지난 16일 사측과 첫 임금피크제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상견례를 겸한 첫 실무협의회에서 노사는 임금피크제의 개념, 임금피크제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타사의 시행 사례 등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조는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전 사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대의원 대회, 조합원 투표 등을 통해 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실무협의에는 노조측에서 도광환 사무국장장과 최현주 총무부장, 옥철 쟁의부장이, 사측에서는 권진택 기획부장, 신을호 인사부장, 김성수 인사부사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앞으로 노사는 2~3주에 한 차례씩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30일 두번째 실무협의를 열 예정이다.